

한국사회복지학

일반논문

이타적행동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가?*

— 기부, 자원봉사, 헌혈 및 혈장기부, 낯선 사람 도움의 영향력 분석 —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김찬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

길영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요 약]

선행연구는 이타적행동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는다고 논의한다. 그러나 그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과연 어떤 유형의 이타적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심리적 요인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영향력에 더해 기부, 자원봉사, 헌혈 및 혈장기부, 낯선 사람 도움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 이타적행동 요인의 영향력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타적행동 중 어떤 행동이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지를 탐색한다. 아울러서 이타적행동은 결합적으로도 행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상호작용항을 통해 행복에 대한 이타적행동의 결합적 영향력도 탐색한다. 분석자료로는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구축한 기빙코리아 2020 자료를 활용하고, 분석방법으로는 위계적 회귀분석의 방법을 사용한다. 분석 결과, 행복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 자율성과 같은 심리적 요인의 설명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타적행동 요인의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행복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이타적행동 요인이 모두 반영된 모형에서 이타적행동 요인 중에서는 자원봉사와 기부(현금)만이 정(+)의 방향에서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합 효과의 검증을 위한 이타적행동 간 상호작용항은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행복의 영향요인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면서 이타적행동 요인의 영향력을 비교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해 내어 새로운 이해를 제공한다.

주제어 : 행복의 결정 요인, 이타적행동, 기부, 자원봉사, 헌혈 및 혈장기부, 낯선 사람 도움

* 본 연구논문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BK21 FOUR 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논문임.

+ 주저자, ++교신저자

1. 서론

현대 사회에서 사회구성원의 행복과 삶의 질 제고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유산을 공유하고 구성원 모두가 문명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권(Turner, 2009)을 강화시키면서 복지국가를 향한 노력을 진행해 온 이유 역시 모든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서다. 그러나 이런 중요성을 갖는 행복은 어렵고도 복잡한 개념이어서 그 실체를 이해하고 객관화하는 데 많은 제한성이 존재한다. 즉 주관적이지도 상대적이지도 할 수 있는 행복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할 것인지, 행복에 대한 수많은 영향요인 중 어떤 요인을 결정 요인으로 설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특히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긍정적 감정이 무너지는 ‘쾌락적응(hedonic adoption) 효과¹⁾’에 의해 행복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 있는데, 행복에 대한 이해와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할지 여전히 어렵고도 주요한 과제이다.

이처럼 행복을 이해하고 연구해 나가는 과정에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에 주목하며 이에 관하여 탐구해 왔다(Diener, 1984; Veenhoven, 2017; Krasnozhan and Levendis, 2020). 일반적으로 행복의 결정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심리적·사회관계적·문화적·환경적 요인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주목한다(구재선·김의철, 2006; Rudd et al., 2014). 이에 더해서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의도적 행동(intentional activities) 요인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의도적 행동들이 행복의 요인으로 주장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쾌락적응 효과에 의도적 행동들이 탄력적으로 작용하여 심리적인 편익을 제공하고, 일상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는데 일정수준 기여하기 때문이다(Lyubomirsky, 2011). 그리고 최근의 연구는 기부나 자원봉사와 같은 이타적행동이 타인을 위한 의도적 행동의 대표적인 유형일 수 있음을 강조한다(Rudd et al., 2014).

본 연구는 이러한 속성을 지닌 이타적행동의 행복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일차적인 관심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기부, 자원봉사, 헌혈 및 혈장기부, 낯선 사람 도움과 같은 이타적행동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행동이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행복 결정 요인과 비교해서 행복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지 탐구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이런 연구의 목적과 관련해서 Andreoni(1990)와 같은 경제학자는 이타적 행동의 ‘따뜻한 빛(warm-glow) 효과’ 가설을 제시하면서 기부나 자원봉사와 같은 이타적행동으로 인해 개인은 일상에서 행복이나 삶의 만족감 등의 정서적 편익(benefit)을 추가적으로 얻는다고 설명한

1) 인간은 진화의 과정에서 심리적 면역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심리적 면역체계는 생존 자체가 목적이었던 시대에 인간이 고통과 슬픔을 느껴도 곧 그에 적응해서 다시 사냥이나 생산 활동에 나설 수 있는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생존의 필수적인 기능이다. 이러한 심리적 면역체계는 불행이나 행복에 있어서도 작동이 된다. 즉 특정 요인에 의해 행복이 발생하는 순간에 그 강도가 크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 대한 감각이 무너지거나 적응이 되면서 긍정적 감정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를 바로 ‘쾌락적응 효과’라고 한다. 이는 경제학의 한계효용체감의 법칙과 유사하다(Lyubomirsky, 2011).

다. 긍정심리학의 대가인 Seligman(2002)을 비롯한 심리학 분야의 연구자들 역시 이타적행동이 삶에 대한 깊은 만족감과 행복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Post, 2005).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타적행동이 행복의 다른 결정 요인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갖는지 그리고 어떤 이타적행동이 행복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타적행동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보다 더 객관적이고 엄밀하게 탐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행복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는 다양한 주요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즉 생물학적 특성과 경제적 상황 등을 포괄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중요할 수 있고, 삶에서의 자율성 인식이나 신뢰와 같은 심리적 요인이 중요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이타적행동 등과 같은 일상의 의도적 행동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실로 매우 다양한 요인이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윤강재·김계연, 2010; Rudd et al., 2014). 그러나 비교의 관점에서 과연 이들 요인의 설명력이 각각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주요 요인들을 포괄했을 때 일상의 의도적 행동인 이타적행동 요인이 갖는 설명력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종합적이며 객관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새로운 연구는 이타적행동과 행복의 관계 분석에서 그 관계를 보다 엄밀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주요 결정 요인들과의 비교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한다. 즉 행복의 주요 결정 요인들을 배제한 채 이타적행동에만 초점을 두고 단순한 관계를 분석하는 분석적 연구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기부나 자원봉사만이 아니라 다른 이타적행동의 유형도 포괄해서 각 행동의 영향력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 낼 수 있어야 한다(Boenigk and Mayr, 2016).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첫째, 행복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다루어 온 핵심 결정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이타적행동의 설명력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비교의 관점에서 탐색해 보고자 한다. 둘째, 시민 일상의 삶에서 가장 널리 행해지는 네 가지 유형의 이타적행동에 주목해서 행복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관찰의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아온 기부나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그간 상대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헌혈 및 혈장기부와 낮선 사람에 대한 도움과 같은 이타적행동도 포괄(정형식·김영심, 2014; Boenigk and Mayr, 2016)하여 행복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이타적행동은 단일 행동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있고, 다양한 유형의 행동이 결합적으로 실행되는 경우(강철희 외, 2017; Hill, 2012)도 있기에,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결합적 행동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나눔에 대한 조사를 대표하는 아름다운재단의 ‘2020 기빙코리아’를 분석자료로 사용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주목해 온 행복의 결정 요인을 반영하고 다양한 유형의 이타적행동과 각 행동 간 상호작용항의 영향력에 초점을 두며 비교의 관점에서 행복에 대한 영향요인과 설명력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큰 차별성을 갖는다. 이러한 차별적 접근을 통해 이타적행동의 영향력에 관한 이해를 좀 더 정교화하는데 이바지하면서 후속 연구의 토대를 체계화시킨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1) 행복에 대한 이해

1990년대 이후 Seligman의 긍정심리학의 영향으로 인간의 행복은 심리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행복은 삶의 좋은 모든 면을 포괄하는 것으로 종종 ‘안녕(well-being)’ 또는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같은 용어와 교환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의 안녕 모두를 나타낸다(Veenhoven, 2017).

현재까지의 행복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행복의 의미는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다(임남연 외, 2010). 주관적 안녕감은 Diener(1984)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고 평가되는데, 그는 행복을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주어진 기준에 근거하여 이해하기보다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접근, 즉 주관성에 근거한 이해가 적절한 것임을 강조하였다(구자영·서은국, 2007). Diener와 그의 연구 동료들(1984)은 행복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주관적 안녕감을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주관적인 심리상태인 것으로 이해하고, 그 구성을 정서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로 구분하였다. 정서적 요소는 긍정 정서(positive affect)와 부정 정서(negative affect)를 포함하는데, 개인이 기쁨이나 즐거움과 같은 긍정 정서를 강하게 경험하고 우울감이나 슬픔과 같은 부정 정서를 덜 경험하게 되면,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구재산·서은국, 2011).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요소는 ‘삶의 만족감(life satisfaction)’으로 지칭될 수 있는데, 삶의 만족감은 스스로 선택한 기준들에 의해 자신의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것, 즉 인지적 판단의 과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한다(임남연 외, 2010).

행복 개념과 관련한 그 밖의 주요 논의를 좀 더 살펴보면, Veenhoven(2017)은 행복을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즉 삶에 대한 호감’이라고 설명하면서, 인간은 감정적 정서와 인지적 판단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복에 대해 인식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 구성과 관련해서는 행복은 스스로의 삶에 대해 안정적으로 구축하게 되는 태도·느낌·신념과 같은 정서적 측면의 ‘쾌락적 정서수준(hedonic level of affect)’이 하나의 핵심 구성이고, 또 다른 핵심 구성은 인지적 측면인 ‘삶의 만족감(life satisfaction)’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도경진·이정섭, 2016). 최근 Veenhoven(2017)은 행복에 대한 개념을 재정리하며, 행복은 삶의 순간에서 느끼는 좋은 감정적 상태인 쾌락적 정서수준을 내포하긴 하나, 행복의 개념에서 좀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이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 지속적으로 만족을 인식하는 정도’, 즉 ‘삶의 만족감’이란 것을 강조한다.

행복에 대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행복이란 개념이 단순화되기 어려운 개념이고 연구자마다 이해를 위한 강조점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행복 개념의 기저에는 ‘개인이 삶의 전반에 대해 호의적으로 인식하는 주관적인 안녕감 또는 삶의 만족감’이 주요하게 자리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2) 이타적행동에 대한 이해

이타적행동²⁾은 이타주의(altruism)에 의해 발현되는 행위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타주의는 어원적 측면에서 보면 타인(altrui)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부터 유래하는 개념으로 자신보다 타인을 위한 것을 의미한다(Krebs and Van, 1994). 이타주의에 대한 근대 사회에서의 논의는 Auguste Comte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Comte는 이타주의에 대하여 이기심과 자기중심주의를 극복하며 타인의 복지 증진에 목적을 두는 생각이나 마음가짐인 것으로 정의하였다(Bar-Tal, 1984). 타인을 위한 생각이나 마음가짐으로부터 발현되는 이타적행동에 대하여 심리학자인 Krebs와 Van(1994)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첫째, 자발적으로 수행되며, 둘째, 그 행동의 목표가 타인을 이롭게 하는 데 있고, 셋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수행되는 행동이 이타적행동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유사하게, Bar-Tal(1984)도 이타적행동은 외적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자발적인 행동으로, 보다 높은 차원의 것이라 할 수 있는 타인을 돕는 행동과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을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속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는 이타적행동은 길을 찾는 사람에게 길을 상세히 알려주는 행위에서부터 기부, 자원봉사, 정서적 지지, 헌혈, 위험한 재난사고 현장에서의 구조 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현대 사회의 곳곳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빈번하게 구현된다(Aknin and Whillans, 2021).

타인을 위한 이타적행동의 보편성 속에서 학자들에게 ‘사람들은 왜 타인을 돕는 이타적행동을 하는가?’란 질문 자체가 매우 흥미로운 연구주제이기에, 이 질문에 대한 다양한 학문 분야의 관심과 이해를 위한 노력은 지대했다. 생물학, 경제학,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발전되었는데, 시각에 따라 다르게 정리될 수 있으나 <표 1>에 제시되는 바와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이타적행동은 유전자의 보호와 확산을 위한 행동임을 강조하는 혈연선택 이타주의(Gardner and West, 2014), 공생을 통해 집단적 삶을 유지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한 행동인 것으로 설명하는 상리공생 이타주의(Balliet et al., 2014), 인간 상호 간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유익한 혜택을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행동임을 강조하는 호혜적 이타주의(Whitehouse and Lanman, 2014), 경쟁적 생존의 상황에서 경쟁자들보다 더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한 행동이라고 설명하는 경쟁적 이타주의(Raihani and Bshary, 2015) 등과 같은 다양한 가설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 가설에서는 이타적행동의 상징으로 친지에 대한 돌봄과 양육(Royle et al., 2012), 연대, 동지애, 시민의식, 공동체 정신(Whitehouse and Lanman, 2014) 등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신뢰, 보답, 감사, 용서와 우정 등을 제시하기도 하고(Kraft-Todd et al., 2015), 관대함, 용감함, 영웅심, 의협심, 관용 등을 제시하기도 한다(Hardy and Van, 2006). 이타적행동이 발현되는 방식과 관련해서 부모의 양육행동과 친족보존행동을 제시하는 혈연선택 가설을 제외한 다른 가설들은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기부, 자원봉사, 헌혈 및 혈장기부, 전혀 모르는 낯선 이에 대한 도움행동, 장기기증과 같은 생명 나눔행동 등을 공통적으로 제시한다(Aknin and Whillans, 2021).

2) 이타적행동은 도움행동, 친사회적행동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해외의 많은 연구들에서도 이타적행동은 도움행동(helping behavior),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 친절(kindness) 및 관대함(generosity)이라는 용어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된다(Batson and Powell, 2003)

〈표 1〉 이타적행동의 이유 및 발현 행동에 대한 다양한 가설

구분	내용	상징 형태	관찰될 수 있는 이타적행동
혈연선택 이타주의 (Kin Altruism)	- 유전적 친척, 가족 구성원을 위하여 이타적 행동을 함 -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자연계에 널리 퍼져 있는 행동	양육, 돌봄, 보존(번식)	부모의 양육 행동, 친족 보존을 위한 다양한 행동
상리공생 이타주의 (Mutualism Altruism)	- 일반적으로 자연계에서 혈연이 아닌 다른 종의 개체와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 즉 공생을 의미함 - 인간 사회에서는 집단이나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집단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안정화하기 위해 이타적행동을 함	(대의명분에 대한) 충성, 연대, 동지애, 시민의식, 공동체 정신	기부, 자원봉사, 헌혈 및 다양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도움 행동 (친숙한 개인이나 기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함)
호혜적 이타주의 (Reciprocal Altruism)	-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상호 간 혜택을 지속하기 위해 이타적행동을 함 - 인간 사회에서만 관찰되는 행동 - 낯선 사람(기관)이 대상으로 포함됨	공정, 신뢰, 보답, 감사, 용서, 우정	낯선 사람(기관)에 대한 기부, 자원봉사, 헌혈 및 혈장기부 등의 다양한 이타적행동
경쟁적 이타주의 (Competitive Altruism)	- 경쟁자나 동료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상황에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이타적행동을 함 - 자연계에서는 경쟁자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짝을 유혹하는 형태로 나타남 - 낯선 사람(기관)이 대상으로 포함됨	관대함, 용감함, 영웅심, 의협심, 관용 및 공공 서비스	낯선 사람(기관)에 대한 적극적 도움 행동, 장기 기증과 같은 특별한 행동, 기업 및 공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행동

이타적행동을 발현케 하는 본질적 이유가 무엇인지와 관련해서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가설이 무엇인지를 검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감이라는 심리학적 가설(Batson and Powell, 2003)과 같이 각 학문 영역에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이타적행동을 조망하는 가설들을 제시하고 있다. 어떤 논리로 이타적행동의 이유를 설명하든지 우리 사회에는 가족과 친족에 대한 돌봄행동, 기부, 자원봉사, 헌혈과 혈장기부, 낯선 사람 도움, 장기기증과 같은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행동 등과 같이 다양한 이타적행동이 발현되고 있다. 즉 다양한 가설들은 이타적행동의 이유를 달리 설명하나, 우리 사회에는 각각의 이유에서 발현된 타인의 유익을 위한 공동된 행동이 존재한다. 타인을 돕는 이유가 달리 설명될 수 있으나 타인과 공동체를 이롭게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주려는 공동된 행동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이타적행동이 지니는 효용은 어느 정도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이타적행동이 주관적 안녕감, 즉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에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설명할 때 심리학이나 경제학 등에서 사용하는 주된 이론은

행복 확산이론(spillover theory)이다(Diener, 1984). 행복 확산이론은 행복이 확산되는 과정을 상향적(bottom-up) 접근과 하향적(top-down) 접근으로 구분하여 개인 행복의 원인과 확산과정을 설명한다(구재선·서은국, 2011). 구체적으로 상향적 접근에서는 행복의 원인을 삶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조건, 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종합적으로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해한다(김병섭 외, 2015). 즉 행복은 개인적인 외부 사건, 환경, 소득, 가족, 직업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영향력을 파악한다(구재선·서은국, 2011). 한편 하향적 접근에서는 개인을 행복하게 하는 어떤 안정적인 내적 경향성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행복의 원인과 관련해서 심리적 요인을 파악한다(구재선·김의철, 2006). 하향적 접근에서의 행복 영향요인으로 성격,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율성 및 상호의존성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주목한다(구재선·김의철, 2006).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되는 행복 확산이론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자들은 상향적 접근과 하향적 접근 중 과연 어떠한 관점이 현실에 더 적합한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구재선·서은국, 2011).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상향적 접근과 하향적 접근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기에 두 관점을 포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수용되는 추세이다(구재선·김의철, 2006; Diener, 1984).

행복 결정 요인의 구조에 대한 전반적 이해에 더해 최근의 행복 연구에서는 새로운 영향요인으로 이타적행동과 같은 의도적 행동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의도적 행동 역시 ‘쾌락적용 효과’에 의한 보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이의 영향력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Lyubomirsky, 2011). 그 실례를 2012년에 처음 발간되기 시작한 세계행복보고서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다. 세계행복보고서는 행복 지표를 개발하여 150개 이상의 국가를 대상으로 행복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살펴면서 이들 나라에서의 행복 결정 요인을 보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행복의 주요 요인으로 상향적 접근에서 강조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건강, 연령, 소득 수준), 하향적 접근에서 강조하는 심리적 요인(자율성-삶의 선택 자유, 신뢰)과 함께 의도적 행동 요인인 이타적행동(기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한국심리학회에서도 성인의 행복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사회봉사와 같은 이타적행동을 포괄하여 관찰하고 있다(김명소 외, 2003).

이상의 정리에서 인식되는 바와 같이, 행복은 상향적 접근과 하향적 접근이란 틀에 의해서 좀 더 균형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세계행복보고서를 포함한 다양한 행복연구에서 반영하고 있듯이, 이타적행동과 같은 의도적 행동 요인에 의해서도 추가적인 이해를 구축할 수 있다. 따라서 행복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심화시키기 위해선 선행연구의 접근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1) 인구사회학적 요인

행복의 영향요인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경제적 상황을 포함하여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 가족관계, 고용상태, 거주지역 등에 초점을 둔다. 먼저 경제 상황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 행복을 제공하는 토대로 작용한다는 시각이 적용된다(김명소 외, 2003). 실증적 연구에서 소득은 행복과 중요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강성진, 2010;

Kawachi et al., 1997). 그러나 이런 결과와는 다르게 경제적 수준은 행복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밝히는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Diener et al., 2010). 다음으로 성별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행복하다는 연구(Diener et al., 2010)와 여성이 더 행복하다는 연구(강성진, 2010), 남녀 간 차이가 없다는 연구(박영산·김의철, 2009) 등과 같이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가 제시된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더 행복하다고 보고되는 경향이 높다(김명소 외, 2003). 연령의 경우에도 행복과의 관계에서 연구의 결과가 일관적이진 않다(한민 외, 2013).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는 연구(권태연, 2009)와 그 반대의 관계, 즉 젊은 세대 구성원의 행복이 성인보다 높지 않다는 결과를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서경현, 2012).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행복이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U자 형태를 보인다는 결과를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강성진, 2010; 한민 외, 2013). 교육수준의 경우, 그 수준이 높은 사람이 삶의 특정 영역에서 보다 높은 만족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행복하다는 사실(Easterlin and Sawangfa, 2009)을 보고하는 경향성이 높다. 종교의 경우,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는데, 종교가 행복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는 연구(박희봉·이희창, 2005)도 있지만,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밝히는 연구(윤현숙·원성원, 2010)도 있다. 가족관계와 관련해서는 일관적 결과가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대다수의 연구는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하다(신승배, 2015)는 사실을 보고한다. 행복에 대한 고용의 영향력과 관련해서도 일관된 결과가 보고된다. 즉 고용이 안정적일수록 행복의 수준이 높다는 결과, 즉 정적인 관계가 보고된다(Binder and Coad, 2013). 관련해서 Blanchflower와 Oswald(2011)는 정규직이 비정규직이나 무직보다 상대적으로 행복의 정도가 더 높다는 사실을 보고한다. Binder와 Coad(2013)도 정규직, 비정규직, 무직자의 순으로 행복이 낮은 경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그러나 Peiro(2006)는 고용시장에서의 지위가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거주 지역의 행복에 대한 영향력과 관련해서 강동우(2017)는 사회경제적 차원의 맥락적 환경과 더불어 거주지역과 같은 물리적 환경이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논의한다.

(2) 심리적 요인

개인이 삶의 전반에 대해 호의적으로 인식하는 주관적인 안녕감 또는 삶의 만족감을 의미하는 행복은 그 속성상 심리적 요인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실제 연구에서도 심리적 요인에 속한 변수의 영향력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대표적인 변수 중의 하나가 바로 자율성(autonomy)이다. 선행연구에서 자율성은 행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된다. 세계행복지수 조사(세계행복보고서, 2020)에서도 자율성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반영하여 국내의 행복 실태 조사에서도 자율성과 행복의 관계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아름다운재단, 2020). 자율성의 영향력 논의는 자율성이 긍정적 행동, 삶의 만족, 주관적인 안녕감, 즉 행복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³⁾에 근거한

3) 자기결정이론은 Edward Deci와 Richard Ryan이 1975년 개인들이 어떤 활동을 내재적인 이유와 외재적인 이유에 의해 참여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결과를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

다. 자기결정이론의 관점에 따르면, 개인에 내재되어 있는 성향인 자율성은 동기를 유발하는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만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Ryan and Deci, 2002). 이런 이해의 틀에 근거하여 자율성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는데, Ryan과 Deci(2002)는 자율성이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행복을 증진시킨다고 설명한다. 다른 다수의 연구에서도 자율성을 포함한 자기결정 동기가 강하면 주관적 안녕감, 즉 행복이 높아진다고 보고한다(Howell and Hill, 2009).

자율성과 함께 타인 등의 특정 대상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신뢰(trust)도 행복에 영향을 주는 주요 심리적 변수로 논의된다(Helliwell et al., 2014). 신뢰의 개념⁴⁾은 다차원적으로 다뤄지나, 기본적으로 신뢰의 대상에 주목하여 ‘시민이 특정 대상과의 관계와 정보·인지를 근거로 판단하는 주관적 기대심리’인 것으로 정의된다(Churchill and Mishra, 2016).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의 사회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여러 대상에 대한 개인의 신뢰와 행복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보고한다(Churchill and Mishra, 2016; Lane, 2017). 또한 분석단위를 국가 차원으로 설정해서 분석한 아시아 29개국에 대한 사회조사 역시도 사회에 대한 개인의 신뢰 수준이 높은 국가가 평균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보고한다(Tokuda et al., 2010). 공적 기관이나 제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Hudson(2006)은 정부기관, 중앙은행, 기업, UN 등의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가 행복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다. 국내 외의 다른 연구에서도 제도나 사회적 기관에 대한 신뢰가 행복과 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강혜진·이민아, 2019; Helliwell et al., 2014).

(3) 이타적행동 요인

일상에서 이뤄지는 의도적 행동 역시도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의도적 행동의 대표적 행동 중 하나가 바로 이타적행동이다. 이타적행동의 동기에 대한 제 학문 영역의 가설은 각기 다르나, 그 효용은 행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심리학⁵⁾의 영역에서 강조하는 타인에

을 바탕으로 수립한 이론을 일컫는다. 기본적으로 ‘자기결정이론’은 사람들이 외부의 영향과 간섭 없이 스스로 선택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둔다.

- 4) Hardin(1998)은 신뢰를 주체, 대상, 근거와 같은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분류하여 “대상의 어떤 행위나 속성 등을 근거로 하여 신뢰 대상에 대해 형성하는 주체의 심리상태(혹은 행위정향)”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신뢰에 대해선 학자들마다 다르게 논의하기도 하는데(박병진, 2007), 그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사적 신뢰와 공적 신뢰이다. 일반적으로 사적 신뢰는 개인 간에 형성되는 신뢰를 의미하며, 공적 신뢰는 제도 및 사회 전반적인 것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적 신뢰, 공적 신뢰를 다시 세 가지로 세분화하여 대인 신뢰, 제도 신뢰, 사회 신뢰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한다(박병진, 2007). 측정에서 대인 신뢰는 “귀하는 평소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합니까?”로, 제도 신뢰는 “국회, 정부, 사법부, 대기업, 사회단체 등 주요 기관 및 제도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합니까?”로, 사회 신뢰는 “우리 사회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문항을 일반적으로 활용한다(강혜진·이민아, 2019). 본 연구의 신뢰는 제도 신뢰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5) 심리학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된 이타적행동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그 밖의 가설에는 Dambrun과 Ricard(2011)의 ‘자기기반 심리적 기능(self-based psychological functioning)과 행복에 대한 가설’이 있다. 이 가설은 자기중심적 심리적 기능과 이타적 심리적 기능을 구분하면서, 전자는 일시적 행복을 가져올 수 있으나 후자에 의해 창출되는 지속성을 담보하는 행복으로는 이어지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지속성을 담보한 행복은 바로 이타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대한 공감에 의한 이타적행동(Batson and Powell, 2003)이든 다른 이기적 이유에 의한 이타적행동이든 이타적행동은 이를 실천하는 개인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즉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타적행동은 경제학자 Andreoni(1990)가 주목하는 정서적 편익을 가질 수 있다. Andreoni(1990)는 ‘따뜻한 빛(warm-glow)’ 가설을 제시하면서 이타적행동이 갖는 효용은 마음속에 따뜻한 빛과 같은 긍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Andreoni(1990)는 기부와 자원봉사와 같은 이타적행동을 실천함으로써 개인은 마음속으로부터 파생되는 따뜻한 느낌과 같은 정서적 편익을 경험하게 됨을 강조하는데, 이 가설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전반적으로 이타적행동이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사실을 지지한다(Aknin and Whillans, 2021).

① 단일 유형의 이타적행동과 행복의 관계

이타적행동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가설에 기초하여 이타적행동이 행복의 영향요인으로 간주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오고 있다. 주로 이타적행동의 대표적 행동으로 간주되는 기부나 자원봉사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해외의 연구에서는 기부나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과 행복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보고한다(Theurer and Wister, 2010; Boenigk and Mayr, 2016; Ricard, 2017). 드물게 헌혈 및 혈장기부에 초점을 둔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는데, 연구에서는 헌혈자가 비헌혈자보다 ‘따뜻한 빛(warm-glow)’에 의해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을 느낀다는 결과를 제시한다(Ferguson et al., 2007). 그러나 이런 결과와는 다르게 헌혈은 사회적 책임 혹은 사회적 의무에 기초한 도덕적 규범에 따라 행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즉 다소의 특수성을 갖고 있어서 행복에 별다른 긍정적 영향을 갖지 않는다고 보고되기도 한다(Lemens et al., 2005; Ferguson et al., 2007).

국내에서도 최근 이타적행동과 행복의 관계에 관해 실증 연구가 실행되고 있다. 노법래(2020)는 종단 경로모형을 통해 기부가 개인의 행복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한다. 편창훈(2021)은 성향점수매칭의 방법을 활용하여, 기부와 자원봉사가 시민들의 삶의 만족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밝힌다. 청소년이나 대학생, 특정 지역의 베이비붐 세대에 한정 지어 진행된 연구들에서도 기부나 자원봉사가 삶의 만족도나 행복에 정적인 방향의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한다(정형식·김영심, 2014). 일반적으로 이타적행동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기부나 자원봉사의 영향력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많고, 헌혈 및 혈장기부나 낫선 사람 도움의 영향력을 살핀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특히 낫선 사람에 대한 도움 행동의 경우, 국내외 모든 곳에서 행복과의 관계를 살핀 실증적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② 다양한 유형이 결합된 이타적행동과 행복의 관계

이타적행동의 행복에 대한 영향력을 살핀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이타적행동의 제 유형 중 단일행동의 개별적 영향력에만 주목해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의 현실에서 인지되듯이, 이타적행동은 단일 형태의 행동만을 선호해서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으나, 다양한 형태의 행동을 결합해서 행할 수도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각 행동 간의 결합, 즉 보완적으로 행해지는 이타적행동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부의 선행연구는 이타적행동

간 상호작용에 대해 탐색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Mohan and Bulloch, 2012).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로서 Hill(2012)의 연구는 자원봉사자의 83%가 기부도 함께 하고 있음을 보고하면서 자원봉사와 기부가 서로 보완적 관계(complementary relationship)를 형성하고 있음을 밝힌다. 미국과 캐나다 및 네덜란드의 연구들에서도 자원봉사를 많이 할수록 기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 즉 자원봉사와 기부 사이에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다(Mohan and Bulloch, 2012). 국내 연구로서 강철희 외(2017)는 SURT(seemingly unrelated tobit model) 분석을 통해 기부와 자원봉사가 상호 결합되는 보완적 관계가 일정 수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힌다. 김지혜와 정익중(2012)은 기빙코리아 자료를 통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 중 자원봉사에만 참여하는 사람들보다 기부와 병행하면서 결합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힌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이타적행동은 이를 구성하는 행동 간 결합이 발생하는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 즉 결합적으로 이타적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복과의 관계에서 이타적행동 간 상호작용의 효과가 파생될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이타적행동 간의 결합적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Bekker, 2002)에도, 지금까지 이타적행동 간의 상호작용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타적행동의 상호작용 효과에도 주목하면서 이타적행동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더욱 확장하고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행복의 결정 요인에 관한 위의 정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와 필요성이 선명하게 파악된다. 첫째, 다양한 행복 결정 요인을 고려하면서, 이타적행동이 행복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이타적행동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다양한 요인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종합적 연구가 이뤄지지는 못했다. 따라서 행복과 관련해서 다수의 연구에서 검증해 온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을 모두 포괄하면서 이타적행동의 설명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강성진, 2010; 서경현, 2012; Binder and Coad, 2013). 둘째, 이타적행동의 영향력과 관련해서, 기부와 자원봉사를 넘어 여러 유형의 행동을 포괄해서 행복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현실 사회에서는 여러 유형의 이타적행동이 존재하기에 헌혈 및 혈장기부, 낯선 사람 도움 행동과 같은 그 밖의 유형도 포괄해서 이타적행동의 행복에 대한 영향력을 좀 더 세밀하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이타적행동의 실제에서 인식할 수 있듯이, 이타적행동은 다양한 행동 간 결합을 통해 실행될 수도 있기에 상호작용효과에도 주목하여 행복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의 새로운 연구는 이타적행동과 행복 간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지식을 확장 및 심화시키고 새로운 이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1) 연구질문과 연구모형

본 연구는 행복 결정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한다. 구체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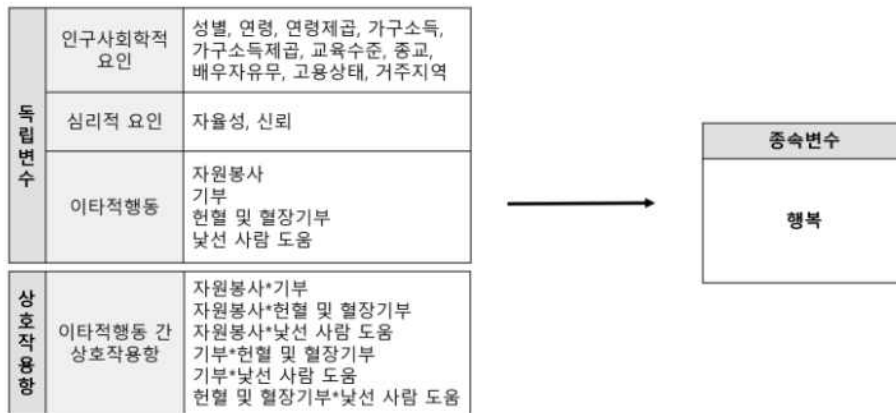
심리적 요인, 이타적행동 요인의 행복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한다. 특히 행복에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논의되어온 이타적행동 요인에 초점을 맞춰 각 이타적행동 및 행동의 결합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분석한다. 선행연구의 논의를 기반으로 구축한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다음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고, 연구모형은 아래의 <그림 1>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다.

연구질문 1)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은 행복에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갖는가?

연구질문 2)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의 행복에 대한 설명력과 비교하여 이타적행동 요인(기부, 자원봉사, 헌혈 및 혈장기부, 낯선 사람 도움)의 행복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력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질문 3) 이타적행동(기부, 자원봉사, 헌혈 및 혈장기부, 낯선 사람 도움) 중 어떤 행동이 행복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가?

연구질문 4) 이타적행동 간의 보완적 행동(상호작용)은 행복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가?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는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구축한 기빙코리아 2020 자료를 활용한다. 이 조사는 2020년 8월 12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지역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도록 구축한 MS(master sample) 패널을 표집틀로 하여 19세 이상 성인 2,006명을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비례할당 후 무작위 선택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한 것이다. 조사 내용은 2020년 한국 시민의 인구사회학적 속성 및 사회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동일 대상에 의해 2019년에 행해진 다양한 형태의 이타적행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최종분석에 활용된 총 유효표본의 크기는 원자료와 동일하게 2,006명이다.

3) 변수의 구성 및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행복은 “삶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귀하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 즉 원자료의 측정 방식 그대로를 사용한다. 원자료에서는 11점 척도(전혀 행복하지 않다=0 ~ 매우 행복하다=10)로 구성되어 측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를 그대로 활용한다. 행복에 대한 측정이 단일 문항으로 이루어져 측정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제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행복의 단일척도와 다차원적 척도의 관계에서 타당도와 신뢰도 상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보고한 Abdel-Khalek(2006)⁶⁾의 논의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도 단일 항목으로 측정된 행복에 대한 원자료 문항을 그대로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이타적행동 요인으로 구성하는데, 각 요인에 속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성별, 연령, 가구소득, 교육수준, 종교, 배우자유무, 고용상태, 거주지역을 활용한다. 성별, 교육수준, 종교, 배우자유무, 고용상태, 거주지역은 원자료에서 범주변수로 측정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들 모두 더미변수화하여 분석한다. 연령과 가구소득의 경우, 원자료에서 연속변수로 측정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되는 다항식(polynomial)의 형태를 반영하여 제곱⁷⁾한 값도 추가해서 분석한다.

다음으로 심리적 변수로는 자율성과 신뢰를 활용한다. 자율성은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있어 자유롭다”라는 단일문항 측정이고, 이에 대한 응답범주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0’에서부터 ‘매우 동의한다=10’까지 11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그대로 사용한다. 신뢰는 7개 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신뢰 문항을 합산하여 측정한다. 응답범주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1’,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2’, ‘대체로 신뢰한다=3’, ‘매우 신뢰한다=4’로 측정되었는데, 이 또한 그대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이타적행동은 자원봉사, 기부(현금), 헌혈 및 혈장기부, 낯선 사람 도움으로 구성된다. 2020년도의 시민의 삶과 인식을 측정한 원자료의 다른 문항들과는 다르게, 이타적행동에 관해서는 기억의 방식에 의거하여 2019년도의 행동을 측정하였는데, 측정을 위한 질문은 “작년(2019) 한 해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였습니까?”이다. 원자료는 자원봉사, 기부(현금), 헌혈 및 혈장기부, 낯선 사람 도움, 지인에 대한 3가지 형태의 지원(현금제공, 봉사, 정서적 지지)과 같이 총 7가지의 활동 내용에 대해 6개의 응답범주(‘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일년에 한번’, ‘일년에 2~3번’, ‘한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상’)를 통해 이타적행동의 참여 빈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타적행동에 대한 이해에서 혈연선택 가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가족이나 친지가 아닌 타인에 대한 배려행동에 초점을 둔다는 보편적 사실을 고려하여, 지

6) “일반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가?”라는 단일 척도와 29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옥스퍼드 행복 Inventory(OHI: Hills and Argyle, 1998),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삶의 만족도 척도(Pavot and Diener, 1993), Arabic Scale of Optimism and Pessimism(Abel-Khalek, 2006) 사이의 동시타당도, 수렴타당도, 확산타당도에 대해 검증하였다.

7)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한 값을 사용하여 제공하였다.

인에 대한 3가지 형태의 지원 문항은 제외한다. 즉 자원봉사, 기부, 헌혈 또는 혈장기부, 낯선 사람 도움에만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본 연구는 4가지 이타적행동 각각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타적행동 간 결합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6개의 상호작용항⁸⁾을 구성해서 분석한다.

이상에서 기술한 본 연구모형 구성 변수들의 측정 내용은 <표 2>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다.

<표 2> 연구모형의 변수와 측정 내용

구분		변수명	설명
종속변수		행복	전반적인 삶을 고려할 때, 행복을 지각하는 정도, 11점 척도 전혀 행복하지 않다=0 ~ 매우 행복하다=10
독립변수	인구 사회학적 변수	성별	남성=0, 여성=1
		연령	만 연령 ※ 연령 제곱 변수를 투입
		가구소득	월 평균 가구소득 ※ 가구소득 제곱 변수를 투입
		교육수준	중학교졸업이하=0, 고등학교졸업=1, 대학교졸업이상=2
		종교	무교 및 기타=0, 기독교=1, 천주교=2, 불교, 원불교=3
		배우자유무	배우자 없음=0, 배우자 있음=1
		고용상태	기타=0, 상용근로자=1, 자영업자=2, 학생=3, 주부=4
		거주지역	비수도권=0, 수도권=1
	심리적 변수	자율성	삶의 과정에서 스스로 지각하는 자율성의 정도, 11점 척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0 ~ 매우 동의한다=10
		신뢰	정부, 단체, 기관 등 사회전반에 대한 신뢰수준 4점 척도의 7개의 문항, 각 문항을 합산하여 측정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1 ~ 매우 신뢰한다=4
	이타적 행동	자원봉사	작년(2019) 한 해 비영리단체에서 자원봉사 참여 빈도 참여하지 않음=0, 일년에 한번=1, 일년에 2~3번=2, 한달에 한번=3, 일 주일에 한번=4, 일주일에 한 번 이상=5
		기부(현금)	작년(2019) 한 해 비영리단체에 기부(현금) 참여 빈도 참여하지 않음=0, 일년에 한번=1, 일년에 2~3번=2, 한달에 한번=3, 일 주일에 한번=4, 일주일에 한 번 이상=5
		헌혈 및 혈장기부	작년(2019) 한 해 헌혈 또는 혈장기부 참여 빈도 참여하지 않음=0, 일년에 한번=1, 일년에 2~3번=2, 한달에 한번=3, 일 주일에 한번=4, 일주일에 한 번 이상=5
		낯선 사람 도움	작년(2019) 한 해 낯선 사람에게 도움제공 참여 빈도 참여하지 않음=0, 일년에 한번=1, 일년에 2~3번=2, 한달에 한번=3, 일 주일에 한번=4, 일주일에 한 번 이상=5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분석방법으로 기술적 통계분석과 회귀분석(OLS regression)을 사용한다. 기술적 통계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혹은 빈도와 퍼센트 등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 8) 이타적행동의 구성 행동인 자원봉사, 기부(현금), 헌혈 또는 혈장기부, 낯선 사람 도움의 6개의 상호작용항을 구성할 때, 본 연구는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의 방법을 사용하여 각 상호작용항의 교적(product)값을 구한 후에 분석모형에 적용하였다.

각 변수의 일반적 특성 및 분포의 속성을 살핀다. 기술적 통계분석 이후 본 연구의 핵심 질문에 대한 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의 방법을 활용한다. 회귀분석에서는 본 연구의 모형에서 포괄하고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한 검증, 심리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한 검증, 이타적행동 요인의 영향력에 대한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의 방식을 사용한다. 즉 행복에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논의되는 두 가지 주요 요인들의 설명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타적행동의 추가적 설명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인 방식으로 회귀분석을 실행한다. 마지막으로 각 요인에 속한 변수의 영향력에 관한 분석과 논의는 모든 변수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최종 모형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에 기반한다. 따라서 이타적행동 중 어떤 행동이 행복에 영향력을 갖는지 그리고 이타적행동 간 상호작용항은 행복에 영향력을 갖는지에 대한 분석도 최종 모형 회귀분석의 결과에 기반한다. 본 연구는 기술적 분석과 회귀분석을 위한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Stata/IC 16.0을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1) 주요 기술통계 결과

(1)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의 결과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행복의 평균과 분포를 살펴보면, 평균값은 6.04점으로 조사대상자는 단일 척도의 중간 점수보다는 0.5점 정도 높은 수준에서 행복을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표준편차는 2.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병구 외(2018)에서 제시된 한국인의 행복 평균값 6.70점에 비해 0.66점이 낮은 수치인데,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값이 발생한 이유는 조사 기간 이전에 발생한 COVID-19와 이에 따른 삶의 제약 등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표 3〉 행복에 대한 기술적 분석(N=2,006)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행복	6.04	2.16	0	10

이타적행동 참여 빈도를 두 범주(‘참여하지 않음’과 ‘일년에 2~3번 이하’의 범주와 ‘한달에 한 번 이상’의 범주)로 나누고 그에 따라 행복의 값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표 4〉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다. 두 범주 간 자원봉사의 경우에는 0.9점의 차이가 있고, 기부의 경우에는 0.98점의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혈 및 혈장기부의 경우와 낮은 사람 도움의 경우에는 두 범주 간 차이가 자원봉사나 기부의 경우와는 달리 0.15점과 0.38점 정도로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 이타적행동 참여 빈도 범주에 따른 행복에 대한 기술적 분석(N=2,006)

변수	참여하지 않음과 일년에 2~3번 이하		한달에 한 번 이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원봉사	5.94	2.16	6.84	1.97
기부(현금)	5.83	2.18	6.81	1.87
헌혈 및 혈장기부	6.04	2.16	6.19	2.10
낯선 사람 도움	6.01	2.14	6.39	2.25

(2) 독립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의 결과

①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의 결과

본 연구 모형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속한 변수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표 5〉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996명(49.7%)과 여성 1,010명(50.3%)으로 구성의 비중에서 거의 동일했다. 연령의 평균은 46.8세이었고,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세 이상이 953명(47.5%)으로 가장 많았다. 가구소득의 월평균은 423.58만원이었다. 교육수준에서는 대학교 졸업 이상이 989명(49.3%)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의 경우, 무교 및 기타가 1,056명(52.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기독교 412명(20.5%), 불교와 원불교 302명(15.1%), 천주교 236명(11.8%)의 순이었다. 배우자 유무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1,240명(61.8%)이었다. 거주지역에서는 수도권이 1,008명(50.3%)이었다. 고용상태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844명(42.1%)이었고, 기타 471명(23.5%), 주부 379명(18.9%), 자영업자 179명(8.9%), 학생 133명(6.6%)의 순이었다.

〈표 5〉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N=2,006)

변수	속성	N	(%)
성별	남성	996	49.7
	여성	1,010	50.3
연령	18~29세	356	17.8
	30~39세	319	15.9
	40~49세	378	18.8
	50세 이상	953	47.5
	평균=46.81 / 표준편차=15.02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59	2.9
	100만원이상 ~ 200만원미만	175	8.7
	200만원이상 ~ 300만원미만	310	15.5
	300만원이상 ~ 400만원미만	389	19.4
	400만원이상 ~ 500만원미만	315	15.7
	500만원 이상	758	37.8
	평균=423.58 / 표준편차=233.34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64	3.2
	고등학교 졸업	953	47.5
	대학교 졸업 이상	989	49.3

변수	속성	N	(%)
종교	무교 및 기타	1,056	52.6
	기독교	412	20.5
	천주교	236	11.8
	불교, 원불교	302	15.1
배우자유무	배우자없음	766	38.2
	배우자있음	1,240	61.8
거주지역	수도권	1,008	50.3
	비수도권	998	49.7
고용상태	상용근로자	844	42.1
	자영업자	179	8.9
	학생	133	6.6
	주부	379	18.9
	기타	471	23.5

② 심리적 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의 결과

심리적 요인에 속한 변수인 자율성과 신뢰의 속성과 분포를 살펴보면, <표 6>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다. 먼저 11점 단일문항을 통해 측정된 자율성의 평균은 6.58점으로 척도 중간 점수인 5.5점보다 1점 정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7개 문항을 4점 척도로 측정한 신뢰의 평균은 15.38점으로 문항 총합의 중간 점수인 17.5점보다 2점 이상 낮게 나타났다.

<표 6> 심리적 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N=2,006)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율성	6.58	2.10	0	10
신뢰	15.38	3.04	7	28

③ 이타적행동 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의 결과

이타적행동 요인에 속한 각 행동 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의 결과는 <표 7>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다. 이타적행동은 자원봉사, 기부(현금), 헌혈 및 혈장기부, 낯선 사람 도움으로 구성되는데,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전혀 참여하지 않음’이 1,263명(63.0%), ‘일년에 한번’ 253명(12.6%), ‘일년에 2~3번’ 258명(12.8%), ‘한달에 한번’ 142명(7.1%), ‘일주일에 한번’ 64명(3.2%), ‘일주일에 한번 이상’이 26명(1.3%)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현금)의 경우 ‘전혀 참여하지 않음’이 915명(45.6%), ‘일년에 한번’ 368명(18.3%), ‘일년에 2~3번’ 282명(14.1%), ‘한달에 한번’ 416명(20.7%), ‘일주일에 한번’ 18명(0.9%), ‘일주일에 한번 이상’이 7명(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혈 및 혈장기부의 경우 ‘전혀 참여하지 않음’이 1,370명(68.3%), ‘일년에 한번’ 324명(16.2%), ‘일년에 2~3번’ 213명(10.6%), ‘한달에 한번’ 73명(3.6%), ‘일주일에 한번’ 21명(1.1%), ‘일주일에 한번 이상’이 5명(0.2%)인 것으로 나타났다. 낯선 사람 도움은 ‘전혀 참여하지 않음’이 1000명(49.9%), ‘일년에 한번’ 418명(20.8%), ‘일년에 2~3번’ 391명(19.5%), ‘한달에 한번’ 139명(6.9%), ‘일주일에 한번’ 41명

(2.0%), ‘일주일에 한번 이상’이 17명(0.9%)이었다. 네 가지 유형의 이타적행동 중 자원봉사와 헌혈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7〉 이타적행동에 대한 기술적 분석(N=2,006)

(단위: 명, %)

변수	전혀 참여하지 않음	일년에 한번	일년에 2~3번	한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이상
자원봉사	1,263 (63.0)	253 (12.6)	258 (12.8)	142 (7.1)	64 (3.2)	26 (1.3)
기부(현금)	915 (45.6)	368 (18.3)	282 (14.1)	416 (20.7)	18 (0.9)	7 (0.4)
헌혈 및 혈장기부	1,370 (68.3)	324 (16.2)	213 (10.6)	73 (3.6)	21 (1.1)	5 (0.2)
낯선 사람 도움	1,000 (49.9)	418 (20.8)	391 (19.5)	139 (6.9)	41 (2.0)	17 (0.9)

다음으로 이타적행동 간 결합 행동의 분포가 어떠한지에 대한 기술적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표 8〉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다. ‘1년에 한번 이상’을 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6가지의 결합적 행동의 양상을 살펴보면, 자원봉사와 기부의 ‘결합적 참여’는 564명(28.1%)이고, 자원봉사와 헌혈 및 혈장기부의 ‘결합적 참여’는 383명(19.1%)이었다. 자원봉사와 낯선 사람 도움의 경우 ‘결합적 참여’는 539명(26.9%)이고, 기부와 헌혈 및 혈장기부의 경우 ‘결합적 참여’는 435명(21.7%)이었다. 다음으로 기부와 낯선 사람 도움은 666명(33.2%)이고, 마지막으로 헌혈과 낯선 사람 도움은 429명(2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타적행동 간 결합행동의 분포에서 자원봉사와 헌혈 및 혈장기부의 결합적 참여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고, 기부와 낯선 사람 도움의 결합적 참여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표 8〉 이타적행동의 결합적 참여에 대한 기술적 분석(N=2,006)

변수	결합적 참여 (1년에 한번 이상)	하나의 행동만 참여 (1년에 한번 이상)		참여하지 않음
자원봉사*기부	564 (28.1)	자원봉사	기부	736 (36.7)
		179 (8.9)	527 (26.3)	
자원봉사*헌혈 및 혈장기부	383 (19.1)	자원봉사	헌혈 및 혈장기부	1,010 (50.3)
		360 (18.0)	253 (12.6)	
자원봉사*낯선 사람 도움	539 (26.9)	자원봉사	낯선 사람 도움	796 (39.7)
		204 (10.1)	467 (23.3)	
기부*헌혈 및 혈장기부	435 (21.7)	기부	헌혈 및 혈장기부	714 (35.6)
		656 (32.7)	201 (10.0)	
기부*낯선 사람 도움	666 (33.2)	기부	낯선 사람 도움	575 (28.7)
		425 (21.2)	340 (16.9)	

변수	결합적 참여 (1년에 한번 이상)	하나의 행동만 참여 (1년에 한번 이상)		참여하지 않음
		헌혈	낮선 사람 도움	
헌혈* 낮선 사람 도움	429 (21.4)	207 (10.3)	577 (28.8)	793 (39.5)

2) 연구모형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 행복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행복에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논의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한 검증을 위해 본 연구는 위계적 회귀 분석의 방식을 실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모형의 첫 번째 요인인 인구사회학적 변수들만으로 구성된 모형(Model 1)에 대해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심리적 요인의 변수가 포괄된 모형(Model 2)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타적행동 요인의 변수가 포괄된 모형(Model 3)에 대해 분석하였다. 즉 4가지 형태의 이타적행동과 6개의 상호작용항의 행복에 대한 영향력을 포괄한 최종 모형(Model 3)에 대한 분석 결과를 각 변수의 영향력에 대한 해석을 위해 활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행복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는 <표 9>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다.

먼저 모형의 설명력을 비교해 보면, 인구사회학적 요인만의 모형(Model 1)이 나타내는 조정된 설명력은 12.6%이었다.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심리적 요인이 추가된 모형(Model 2)의 행복에 대한 조정된 설명력은 43.2%이었다. 마지막으로 이타적행동 요인이 추가적으로 반영된 모형(Model 3)의 행복에 대한 조정된 설명력은 44.1%이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행복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 심리적 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그다음이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영향력이란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이타적행동 요인의 경우, 추가된 영향력에 대한 통계적인 중요도가 있긴 하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의 모형으로부터 더 추가되는 설명력은 0.9% 정도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행복 확산이론의 틀에 기반해서 해석해 보면,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향적 접근에 속한 심리적 요인이고, 그 다음이 상향적 접근에 속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임을 인식할 수 있다. 이타적행동과 같은 의도적 행동 요인의 경우 행복에 영향력을 미치긴 하나 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모든 요인이 포괄된 모형(Model 3)을 토대로 행복에 대한 제 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행복에 영향력을 갖는 변수는 연령(-), 연령제곱(+), 가구소득(+), 가구소득제곱(-), 기독교(+), 배우자유무(+), 상용근로자(+)⁹⁾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연령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행복은 감소하다가($\beta = -.117, p < 0.001$) 일정 연령이 지나면 행복이 제고되는($\beta = .062, p < 0.01$) U자형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

9) 비교의 차원에서 이타적행동 상호작용항이 투입되지 않은 모형을 토대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이타적행동 요인의 행복에 대한 영향력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표 9>의 모형 3과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는 연령(-), 연령제곱(+), 가구소득(+), 가구소득제곱(-), 기독교(+), 배우자유무(+), 상용근로자(+), 심리적 요인에서는 자율성(+), 신뢰(+), 이타적행동 요인에서는 자원봉사(+), 기부(+)⁹⁾가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을 기준으로 할 때 기술키 변화의 지점은 61.19세였다. 이는 연령과 행복이 U자형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보고한 강성진(2010)과 한민 외(201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가구소득의 경우 역 U자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행복이 높아지다가($\beta=.110$, $p<0.001$) 일정 수준(월 약 1010만원)의 가구소득 이후에는 행복이 감소하는($\beta=-.049$, $p<0.05$)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소득과 행복의 관계가 정적 방향의 일관적 관계가 아님을 시사해 준다. 종교의 경우, 무교에 비해 기독교에 속한 시민일수록 행복의 크기가 다소 더 높은 것($\beta=.040$, $p<0.05$)으로 파악되었다. 가족관계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배우자가 있을 때 행복한 정도가 더 높은 것($\beta=.182$, $p<0.001$)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복에 있어 배우자가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마지막으로 고용상태는 상용근로자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정도의 행복을 인식하는 것($\beta=.053$, $p<0.05$)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안정적인 고용의 지위가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심리적 요인에 속한 변수 중 자율성은 행복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율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더 높은 정도에서 행복을 인식하는 것($\beta=.538$, $p<0.001$)으로 나타났는데, 자율성은 본 연구의 모형을 구성하는 변수 중 행복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행복과 관련해서 삶의 자율성이 갖는 의미가 매우 지대하단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자율성이 행복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이상철 외, 2010; Ryan and Deci, 2002)의 결과와 일관된 것이기도 하다. 또 다른 심리적 변수인 신뢰의 경우 역시 행복과 유의미한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가 높을수록 더 높은 수준에서 행복을 인식하는 것($\beta=.079$, $p<0.001$)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뢰와 행복의 관계를 밝힌 Tokuda 외(2010)의 연구 및 전승봉(201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행복에 대한 이타적행동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먼저 네 가지 유형 중 기부와 자원봉사만이 정적인 방향에서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헌혈 및 혈장기부와 낯선 사람 도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심리적 변수가 통제된 상황에서도 자원봉사 참여 빈도가 더 빈번할수록 행복의 정도는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beta=.056$, $p<0.01$)으로 나타났다. 기부의 경우에도 기부 참여 빈도가 빈번할수록 행복이 증가하는 것($\beta=.063$, $p<0.01$)으로 나타났다¹⁰⁾. 이러한 결과는 자원봉사(Theurer and Wister, 2010)와 기부(Boenigk and Mayr, 2016)의 행복에 대한 기존 검증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6개의 이타적행동 간 보완적 행동 즉 상호작용항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모형 3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6개의 상호작용항 중 그 어떤 상호작용항도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타적행동을 보완적

10) <부록 1>과 같이, 참여 빈도(일회성과 정기성)를 기준으로 각 이타적행동과 상호작용항이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회성(일년에 한번 이하)과 정기성(일년에 두 세번 이상)으로 구분한 후 일회성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행복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원봉사, 기부(헌금), 헌혈 또는 혈장기부, 낯선 사람 도움에서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항 모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으로 행하는 것보다는 자원봉사나 기부 중 어떤 하나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행복의 정도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시해 주는데, 이에 관해서는 후속적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모형3을 기준으로 각 변수의 영향력 크기를 베타(β)값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행복에 가장 지대한 영향력은 갖는 것은 심리적 요인에 속한 자율성(+)이었다. 그 다음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속한 배우자 유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배우자 유무 다음에는 연령(-), 가구소득(+), 신뢰(+), 기부(+), 연령제공(+), 자원봉사(+), 고용상태 중 상용근로자(+), 가구소득제공(-), 종교 중 기독교(+),의 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 행복에 대해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갖는 변수는 자율성이고, 그 다음이 가족관계 중 배우자이며, 그 다음은 연령, 소득, 신뢰이고, 그 다음의 영향력을 갖는 것이 바로 기부와 자원봉사란 사실이 파악된다. 행복 확산이론의 틀에서 이런 결과를 조망해보면, 행복의 원천은 하향적 접근에 속하는 자율성과 상향적 접근에 속하는 가족이고, 의도적 행동 요인에 속하는 기부나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이타적행동은 행복에 긍정적 영향력이 있긴 하나 그 영향력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표 9〉 행복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2,006)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β	B	SE	β	B	SE	β
성별(ref. 남성)		.001	.104	.000	-.096	.084	-.022	-.093	.085	-.021
연령		-.001	.004	-.004	-.016	.003	-.11***	-.017	.003	-.11***
연령제공		.001	.000	.007***	.001	.000	.065**	.001	.000	.062**
가구소득		.002	.000	.21***	.001	.000	.121***	.001	.000	.110***
가구소득제공		-.000	.000	-.077**	-.000	.000	-.052*	-.000	.000	-.049*
교육 수준 (ref. 중졸 이하)	고졸	-.076	.267	-.018	-.164	.215	-.038	-.197	.214	-.046
	대졸이상	.564	.272	.131*	.204	.219	.047	.124	.219	.029
종교 (ref. 무교 및 기타)	기독교	.427	.120	.080***	.245	.098	.046*	.212	.098	.040*
	천주교	.443	.149	.066**	.216	.121	.032	.145	.121	.022
	불교, 원불교	.384	.134	.064**	.226	.109	.037*	.183	.108	.030
배우자유무 (ref. 배우자없음)		.726	.121	.163***	.817	.098	.184***	.806	.097	.182***
고용 상태 (ref. 기타)	상용근로자	.484	.126	.111***	.240	.102	.055*	.232	.102	.053*
	자영업자	.259	.181	.034	.060	.146	.008	.072	.146	.009
	학생	.959	.245	.111***	.262	.199	.030	.206	.198	.024
	주부	.257	.161	.047	.136	.129	.025	.147	.129	.027
거주지역(ref. 비수도권)		-.137	.092	-.032	-.131	.074	-.030	-.104	.074	-.024
자율성					.564	.018	.550***	.552	.018	.538***
신뢰					.064	.012	.090***	.056	.013	.079***
자원봉사								.099	.037	.056**
기부(현금)								.109	.033	.063**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β	B	SE	β	B	SE	β
헌혈 및 혈장기부							.028	.051	.012
낮선 사람 도움							.043	.037	.023
자원봉사 * 기부(현금)							-.015	.026	-.012
자원봉사 *							-.058	.035	-.041
헌혈 및 혈장기부 자원봉사 * 낮선 사람 도움							-.011	.025	-.010
기부(현금) *							-.062	.034	-.040
헌혈 및 혈장기부 기부(현금) *							-.008	.029	-.005
낮선 사람 도움									
헌혈 및 혈장기부 *							.016	.037	.011
낮선 사람 도움									
Constant	4.753	.313					.913	.321	
R ²		0.133		0.437			0.449		
Adjusted R ²		0.126		0.432			0.441		
F		19.10***		85.80***			57.44***		

※ 모형3 기준 연령변수 기울기 변화시점 : 61.19세

※ 모형3 기준 가구소득변수 기울기 변화시점 : 1010.34만원

※ *p<0.05, **p<0.01, ***p<0.001

5. 결론

행복은 모든 사람의 보편적 관심사이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복지국가에서도 구성원인 시민의 행복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Lane, 2017). 이런 의미를 지니는 행복에 대한 이해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측면을 넘어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Lane, 2017). 심리학, 경제학 및 사회학 등의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행복의 결정 요인으로 여러 요인을 제시하고 검증해 왔고, 최근에는 이타적행동과 같은 의도적 행동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Diener, 1984; Argyle, 2013; Veenhoven, 2017; Krasnozhan and Levendis, 2020). 이런 논의를 반영해서 본 연구는 이타적행동의 영향력에 관심을 가졌다. 즉 본 연구는 이타적행동이 어느 정도 행복에 영향력을 갖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유형의 이타적행동이 영향력을 갖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촉발되었다. 그간의 연구에서 주요하게 여겨진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에 더해 이타적행동 요인이 포괄된 모형에 기초해서 행복의 영향력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타적행동을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행해진 자원봉사, 기부, 헌혈 및 혈장기부, 낮선 사람 도움으로만 조작화한 후 각 유형의 행복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더 나아가서 일상에서 이타적행동이 결합적으로 즉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반영하여 행동 간 상호작용 효과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의 결정 요인 중에서 심리적 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지대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리적 요인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갖는 것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이었다. 이타적행동 요인의 영향력을 심리적 요인이나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영향력과 비교해 볼 때, 그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긴 하나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행복 확산이론의 틀에서 살펴보면, 행복의 원천에 하향적 접근의 요인에 속하는 심리적인 것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그다음에 상향적 접근의 요인에 속하는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이타적행동과 같은 의도적 행동 요인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심리적 요인이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비교해 보면 비록 그 영향력이 크진 않으나 이타적행동 요인 역시 일정 수준 행복에 긍정적 영향력을 지니는데, 이타적행동의 유형 중 기부와 자원봉사활동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헌혈 및 혈장기부와 낮은 사람 도움과 같은 이타적행동은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 새롭게 탐색해 보았던 4가지 유형의 이타적행동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타적행동의 영향력을 정리해보면, 현대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이타적행동이라 할 수 있는 기부나 자원봉사와 같은 단일행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하는 삶을 이뤄갈 때 비록 영향력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작긴 해도 행복에 일정 수준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각 요인에 속한 변수의 측면에서 정리해보면, 행복에 대한 영향력 중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수는 심리적 요인에 속한 자율성이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는 배우자유무, 가구소득, 연령 등의 변수가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에서도 강조하였듯이, 이타적행동 요인 중에서는 기부활동과 자원봉사활동만이 행복의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합적으로 반추해 보면, 삶의 자율성과 같은 내재적 동기 요인에 대한 충족이 일반 시민의 행복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고, 삶의 원동력의 하나로 작용하는 가족과 경제적 안정성이 그다음으로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며, 사회적으로 보편화된 나눔의 통로인 기부와 자원봉사를 실천하며 타인과 공동체에 도움을 제공하며 살아가는 것이 미약하나마 행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지니는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타적행동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분석 결과, 자원봉사와 기부만이 행복과 선형관계를 갖고 헌혈 및 혈장기부와 낮은 사람 도움의 경우 선형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의 연구에서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 기저에 무엇이 작동하는지를 좀 더 다각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부록 1>에서 제시되듯이, 선형관계가 아닌 정기적 행동 여부의 영향력에 주목해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파악된다. 즉 측정의 방식을 일회성(일년에 한번 이하)과 정기성(일년에 두세번 이상)의 범주로 나뉘어 이타적행동의 영향력을 분석해 보면, 네 가지 유형의 이타적행동 모두가 정적인 방향에서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이타적행동의 영향력에서 참여 빈도의 선형성보다는 일정 기준점 이상의 정기적 행동이 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런 사실에 좀 더 주목해서 연구를 새롭게 진행해 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이타적행동에 관한 분석 결과 헌혈 및 혈장기부와 낮은 사람 도움이 선형적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타적행동 유형 각각에 대한 세심한 이해가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 헌혈 및 혈장기부의 경우 군대나 공공기관 혹은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큰데, 이 과정에서 규범적 압력(Lemens et al., 2005; Ferguson et al., 2007)이 좀 더 주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학생들의 헌혈에서는 이력서에 기재하여 취업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동기가 주요하게 작동할 가능성도 있다(Lemens et al., 2005). 또한 헌혈은 외과 시술적인 성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Ferguson et al., 2007). 이처럼 헌혈의 경우 행동 선택 과정의 속성, 동기적 속성 및 외과 시술적 속성 등의 작동으로 다른 이타적행동과 차이를 가질 수 있는데, 향후의 연구에서는 이타적행동 각각의 속성에 주목하면서 행복과의 관계를 좀 더 다각적이고 엄밀하게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이타적행동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이유는 시민이 이타적행동을 행할 때 기본적으로 대체의 관점에서 하나의 행동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타적행동 선택 과정에 대한 새로운 관찰이 필요할 수 있다. Andreoni(1990)의 시각을 적용하면, 이타적행동 각각의 유형에 대한 개인의 선택은 비용과 편익의 비교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즉 시민 개개인은 일반적으로 비용-편익에 의거한 판단에 따라 가능한 선택 범위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어느 하나의 선호되는 활동을 선택하여 행동하는 합리적 행동의 경향성을 가질 수 있다. 아마도 이런 기제의 작동으로 인해 결합적 행동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하는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타적행동에 보완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런 결합적 참여의 영향력이 기대와는 다르게 미미한 것에 대해선 향후 질적 연구 등을 통해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복지적 측면에서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타적행동 중 자원봉사와 기부가 그 영향이 다른 주요 요인처럼 지대하진 않으나 일정 수준에서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데, 이는 관련 행동의 확산과 강화를 위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한다. 즉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자원봉사와 기부가 작지만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한국 사회에서 이런 행동을 각인시키고 더 폭넓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예로 해외 선행연구들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교육기관에서의 서비스 학습(service learning) 등을 통해 이타적행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고, 나눔 교육(philanthropy education) 등을 통해 가치를 내재화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Van and Brooks, 2005), 이런 다각적인 접근을 적용하여 이타적행동의 강화 및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타적행동의 경험을 넓혀주는 것은 개인의 삶과 사회적 안녕 모두에 긍정적 파급력을 갖기에(이상철 외, 2010), 이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인 듯하다. 특히 사회복지기관 등의 비영리조직과 교육기관의 협력을 통한 나눔교육 및 서비스 학습의 실행 노력은 긍정적 영향력이 작다고 할 수 없기에(Van and Brooks, 2005), 사회복지기관 등을 포함한 다양한 비영리조직들이 좀 더 적극적인 노력

을 개진하며 지역사회에서 그 파급력을 확장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노력을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좀 더 민감하게 고려해야만 하는 흥미로운 주제를 본 연구의 결과는 제시해 주고 있는데, 이는 바로 자율성이다. 자율성은 모든 사람의 삶의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갖기에, 이타적행동의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들의 진행에서도 존중될 필요성이 있다(Magnani and Zhu, 2018). 이와 관련해서 선행연구는 자원봉사나 기부, 헌혈 및 혈장기부에서 자신의 선택 기준에 따라 자유롭게 참여했을 때 뇌의 보상 영역(reward system)이 더 강하게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보고한다(Harbaugh et al., 2007).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이타적행동의 촉진을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도 향후 자율성에 대한 존중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교는 졸업 요구 조건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기업은 성과평가의 한 항목으로 이타적행동의 실행을 넣기도 하는데, 이런 외부 압력 방식은 불편감과 거부감을 촉발시키고, 이타적행동의 긍정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Harbaugh et al., 2007). 따라서 행복에 긍정적 파급력을 갖는 이타적행동의 확산을 위한 노력에서도 자율적인 선택은 존중될 필요성이 있다(Magnani and Zhu, 2018).

본 연구는 행복에 대한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이타적행동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 및 확장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이런 연구의 취지를 따라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했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질 수 있다. 첫째, 이차 자료(secondary data)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기에, 본 연구의 모형에서 사용한 변수 이외의 영향요인, 즉 제3의 변수를 좀 더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닐 수 있다. 둘째, 변수의 측정 방식에서 제한성을 갖는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기에, 다소의 한계를 지닐 수 있다. 예로, 이타적행동 측정의 응답범주를 보면 범주 간 비율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일부 범위는 누락되어 있는 등의 제한성을 갖는다. 또한 행복을 측정할 때 단일문항만을 사용하였는데, 비록 단일문항의 사용이 타당도와 신뢰도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여전히 유효하긴 하나 일정 수준의 제한점을 내포할 수도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이타적행동과 행복과의 관계를 횡단면 자료에 기반해서 검증하기 때문에, 종단적인 자료에 기초한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는 연구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 향후 시간적 차이가 선명하게 구현되는 패널자료를 구축해서 그 인과적 관계를 더욱 엄격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패널자료에 기반해서 행복과 이타적행동의 역방향 관계 및 쌍방향 관계에 대해서도 더욱 엄밀하게 검증하는 연구가 새롭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본 연구의 제한성을 넘는 진일보한 연구가 진행되어 이타적행동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이해 기반이 더욱 심화 및 확장되고 공고화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성진, 2010, “한국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경제학연구』, 58(1): 5-36.
- 강철화·김유나·김수빈, 2017, “기부와 자원봉사의 관계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9(2): 29-54.
- 강혜진·이민아, 2019, “사회신뢰와 대인신뢰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삶의 질 매개효과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8(1): 329-360.
- 구자영·서은국, 2007, “행복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믿음과 주관적 안녕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1-19.
- 구재산·김의철, 2006, “심리적 특성, 생활 경험, 행복의 통합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4): 1-18.
- 구재산·서은국, 2011, “한국인, 누가 언제 행복한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143-166.
- 권태연, 2009, “노년기 연소노인, 중고령노인, 초고령노인 집단의 스트레스 요인과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 2 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0(1): 163-196.
- 김명소·김혜원·한영식·임지영, 2003,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22(2): 1-33.
- 김병섭·최성주·최은미, 2015, “국민행복, 삶의 질,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관계 연구”, 『한국행정학보』, 49(4): 97-122.
- 김지혜·정익중, 2012, “기부행동과 자원봉사활동은 중복적 보완관계인가? 보충적 대체관계인가?”, 『한국사회복지학』, 64(2): 133-158.
- 노법래, 2020, “기부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 인과적 방향성 검토를 위한 중단 경로모형 과 교차지연 패널모형의 결합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0(1): 178-205.
- 도경찬·이정섭, 2016, “행복의 개념분석”, 『대한질적연구학회지』, 1: 53-63.
- 박병진, 2007, “신뢰형성에 있어 사회참여와 제도의 역할”, 『한국사회학』, 41(3): 65-105.
- 박영신·김의철, 2009, “한국 성인 남녀가 행복에 이르는 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3): 467-495.
- 박희봉·이희창, 2005,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교 분석-경제, 사회적 요인인가? 사회자본 요인인가?”, 『한국행정논집』, 17: 709-728.
- 서경현, 2012, “청소년의 삶에 대한 기대와 주관적 웰빙: 일반 성인과의 비교 연구”, 『청소년학연구』, 19(12): 137-157.
- 신승배, 2015, “한국인의 행복감 결정요인”, 『사회과학연구』, 41(2): 183-208.
- 아름다운재단, 2020, “개인기부자조사”.
- 윤강재·김계연, 2010, “OECD 국가의 행복지수 산정 및 비교”, 『보건복지포럼』, 2010(1): 86-98.
- 윤현숙·원성원, 2010, “노인의 영성과 종교 활동이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 노년학』, 30(4): 1077-1093.
- 이상철·홍환·박언하, 2010, “정기적 기부 및 자원봉사 제고 방안 연구: 나눔경험의 효과성 검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2(1): 117-149.
- 임남연·이화령·서은국, 2010, “한국에서의 Diener의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사용 연구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1): 21-47.
- 전승봉, 2018, “행복한 국가의 조건은 무엇인가: 거버넌스의 질, 신뢰, 평등, 그리고 보편적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58: 279-322.

- 정형식·김영심, 2014, “자선단체 기부자의 기부행동과 삶의 질과의 연관성”, 『한국비영리연구』, 13: 115-141.
- 조병구, 2018, 『국민행복지표 개발 연구』보고서.
- 편창훈, 2021, “나눔이 삶의 만족을 증대시키는가?”, 『통계연구』, 26(1): 1-22.
- 한민·류승아·김경미, 2013, “사회비교와 행복의 관계에서 문화적 자기관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4): 577-597.
- Abdel-Khalek, A. M., 2006, “Measuring Happiness With A Singles-Item Scale”,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4(2): 139-150.
- Aknin, L. B., and Whillans, A. V., 2021, “Helping and happiness: A review and guide for public policy”, *Social Issues and Policy Review*, 15(1): 3-34.
- Andreoni, J., 1990, “Impure altruism and donations to public goods: A theory of warm-glow giving”, *The economic journal*, 100(401): 464-477.
- Argyle, M., 2013, *The psychology of happiness*, London: Routledge.
- Balliet, D., Wu, J., and De Dreu, C. K., 2014, “In group favoritism in cooperatio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40(6): 1556-1581.
- Bar-Tal, D., 1984, “American study of helping behavior”, *In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prosocial behavior*, 5-27.
- Batson, C. D., and Powell, A. A., 2003 “Altruism and prosocial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463-484
- Binder, M., and Coad, A., 2013, “Life satisfaction and self-employment: A matching approach”, *Small business economics*, 40(4): 1009-1033.
- Blanchflower, D. G., and Oswald, A. J., 2011, “International happiness: A new view on the measure of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25(1): 6-22.
- Boenigk, S., and Mayr, M. L., 2016, “The happiness of giving: evidence from the German socioeconomic panel that happier people are more generou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7(5): 1825-1846.
- Churchill, S., and Mishra, V., 2017, “Trust, social networks and subjective wellbeing in China”, *Social Indicators Research*, 132(1): 313-339.
- Dambrun, M., and Ricard, M. 2011, “Self-centeredness and selflessness: A theory of self-based psychological functioning and its consequences for happines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5(2): 138-157.
- Deci, E. L., and Ryan, R. M., 2002, *Self-determination research: Reflections and future directions*,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Wirtz, D., Tov, W., Kim-Prieto, C., Choi, D. W., Oishi, S., and Biswas-Diener, R., 2010, “New well-being measures: Short scales to assess flourishing and positive and negative feelings”, *Social indicators research*, 97(2): 143-156.
- Easterlin, R. A., and Sawangfa, O., 2009, “Happiness and Its Sources: Intersections of Psychology, Economics, and Demography”,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7: 463-482.
- Ferguson, E., France, C. R, Abraham, C., Ditto, B., and Sheeran, P., 2007, “Improving blood donor

- recruitment and retention: Integrating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 agendas”, *Transfusion*, 1999–2010.
- Gardner, A., and West, S. A., 2014, “Special issue: Inclusive fitness: 50 years on”,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369.
- Harbaugh, W. T., Mayr, U., and Burghart, D. R., 2007, “Neural responses to taxation and voluntary giving reveal motives for charitable donations”, *Science*, 316: 1622–1625.
- Hardin, R. 1998, “Trust in government, in M. Levi and V. Braithwaite(eds)”, *Trust and Governance*,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9–27.
- Hardy, C. L., and Van Vugt, M., 2006, “Nice guys finish first: The competitive altruism hypothe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10): 1402–1413.
- Helliwell, J. F., Huang, H., and Wang, S., 2014, “Social capital and well-being in times of crisi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5(1): 145–162.
- Hill, M.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volunteering and charitable giving: Review of evidence”, *London: Centre for Charitable Giving and Philanthropy*.
- Howell, R. T., and Hill, G., 2009, “The mediators of experiential purchases: Determining the impact of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and social comparison”,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6): 511–522.
- Hudson, J., 2006, “Institutional trust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the EU”, *Kyklos*, 59(1): 43–62.
- Kawachi, I., Kennedy, B. P., and Lochner, K., 1997, “Social Capital, Income Inequality and Mortalit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7: 1491–1498.
- Kraft-Todd, G., Yoeli, E., Bhanot, S., and Rand, D., 2015, “Promoting cooperation in the field”, *Current Opinion in Behavioral Sciences*, 3: 96–101.
- Krasnozhon, L., and Levendis, J.,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Volunteering, and Donating”. *Journal of Economic Insight*, 46(1): 1–14.
- Krebs, D. L., and Van Hesteren, F., 1994, “The development of altruism: Toward an integrative model”, *Developmental Review*, 14(2): 103–158.
- Lane, T., 2017, “How does happiness relate to economic behaviour?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behavioral and experimental economics*, 68: 62–78.
- Lemmens, K. P. H., Abraham, C., Hoekstra, T., Ruiter, R. A. C., De Kort, W. L. A. M., Brug, J., and Schaalma, H. P., 2005, “Why don’t young people volunteer to give blood? An investigation of the correlates of donation intentions among young nondonors”, *Transfusion*, 45: 945–955.
- Lyubomirsky, S., 2011, *Hedonic adaptation to positive and negative experiences*, Oxford University Press.
- Magnani, E., and Zhu, R., 2018, “Does kindness lead to happiness? Voluntary activities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behavioral and experimental economics*, 77: 20–28.
- Mohan, J., and Bulloch, S. L., 2012, *The idea of a civic core: what are the overlaps between charitable giving, volunteering, and civic participation in England and Wales?*, Third Sector Research Centre
- Peiró, A., 2006, “Happiness, satisfaction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Some international evidence”,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5(2): 348–365.
- Post, S. G., 2005, “Altruism, happiness, and health: It’s good to be good”, *International journal of*

- behavioral medicine*, 12(2): 66-77.
- Raihani, N. J., and Bshary, R., 2015, "Why humans might help strangers", *Frontiers in Behavioral Neuroscience*, 9(39).
- Ricard, M., 2017, "Altruism and happiness", *Happiness*, 156.
- Royle, N. J., Smiseth, P. T., and Kölliker, M., 2012, *The evolution of parental care*, Oxford University Press.
- Ryan, R. M., and Deci, E. L., 2002,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 dialectical perspective",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2: 3-33.
- Rudd, M., Aaker, J., and Norton, M. I., 2014, "Getting the most out of giving: Concretely framing a prosocial goal maximizes happines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4: 11-24.
- Seligman, M. E., 2002, "Positive psychology, positive prevention, and positive therapy",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2(2002): 3-12.
- Theurer, K., and Wister, A., 2010, "Altruistic behaviour and social capital as predictors of well-being among older Canadians", *Ageing and Society*, 30(1): 157.
- Tokuda, Y., Fujii, S., and Inoguchi, T., 2010, "Individual and Country Level Effects of Social Trust on Happiness: The Asia Barometer Surve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0(10): 2574-2593.
- Turner, B. S., 2009. "TH Marshall, social rights and English national identity: Thinking Citizenship Serie", *Citizenship Studies*, 13(1): 65-73.
- Van Slyke, D. M. and Brooks, A. C., 2005, "Why do people give? New evidence and strategies for nonprofit managers",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35(3): 199-222.
- Veenhoven, R., 2017, "Measures of Happiness: Which to Choose?", *Metrics of Subjective Well-Being: Limits and Improvements*, 65-84.
- Whitehouse, H., and Lanman, J. A., 2014, "The ties that bind us ritual, fusion, and identification", *Current Anthropology*, 55(6): 674-695.
- 세계행복보고서, 2020, <https://happiness-report.s3.amazonaws.com/2020/WHR20.pdf>

〈부록 1〉 행복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2,006)

		B	SE	β
성별(ref. 남성)		-.091	.084	-.021
연령		-.016	.003	-.112***
연령제곱		.001	.000	.063**
가구소득		.001	.000	.113***
가구소득제곱		-.000	.000	-.050*
교육 수준 (ref. 중졸이하)	고졸	-.175	.215	-.041
	대졸이상	.150	.219	.035
종교 (ref. 무교 및 기 타)	기독교	.201	.098	.039*
	천주교	.148	.121	.022
	불교, 원불교	.195	.108	.032
배우자유무 (ref. 배우자없음)		.811	.097	.183***
고용 상태 (ref. 기타)	상용근로자	.225	.102	.051*
	자영업자	.046	.146	.006
	학생	.210	.198	.024
	주부	.141	.129	.026
거주지역 (ref. 비수도권)		-.111	.074	-.026
자율성		.552	.018	.538***
신뢰		.056	.013	.079***
자원봉사 (ref. 참여하지 않음과 일회성)		.352	.155	.070*
기부(현금) (ref. 참여하지 않음과 일회성)		.366	.110	.082**
헌혈 또는 혈장기부 (ref. 참여하지 않음과 일회성)		.388	.184	.065*
낮선 사람 도움 (ref. 참여하지 않음과 일회성)		.252	.125	.053*
자원봉사 * 기부(현금)		-.216	.186	-.036
자원봉사 * 헌혈 및 혈장기부		-.241	.240	-.030
자원봉사 * 낮선 사람 도움		-.068	.194	-.011
기부(현금) * 헌혈 및 혈장기부		-.329	.220	-.043
기부(현금) * 낮선 사람 도움		-.021	.178	-.003
헌혈 및 혈장기부 * 낮선 사람 도움		-.284	.229	-.037
Constant		.615	.316	
R ²			0.447	
Adjusted R ²			0.439	
F			57.07***	

※ *p<0.05, **p<0.01, ***p<0.001

Does altruistic behavior affect happiness?

– Analysis of the Impact of Donation, Volunteering, Blood or Plasma Donation, and Helping for Strangers –

Kang, Chul Hee
(Yonsei University)

Kim, Chan Mi
(Yonsei University)

Kil, Young In
(Yonsei University)

Previous studies discuss that altruistic behavior has a positive influence on happiness. However, there has been a limited understanding regarding the relative explanatory power of altruistic behavior and the impact of different types of altruistic behavior.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he psychological and demographic factors influence happiness. In addition, it examines how altruistic behavior such as donations, volunteering, blood and plasma donations, and helping strangers affect happiness. Simultaneously, considering the combinatorial characteristics of altruistic behaviors, it examines the interaction effects of altruistic behavior on happines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Giving Korea 2020 data by the Beautiful Found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proposed model by using a hierarchical OLS regression method.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s for happiness were autonomy, spouse, income and age among psychological and demographic factors. Particularly, autonomy was the most significant predictor for happiness. Second, regarding the main effect of each type of altruistic behavior, only donation and volunteering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 positive relationship on happiness. Third, the interaction effect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happines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vides a theoretical discussion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ltruistic behavior and happiness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promoting altruistic behavior in our society.

Key words: determinants of happiness, altruistic behavior, donation, volunteering, blood or plasma donation, helping for strangers

[논문접수일: 22. 6. 30, 심사일: 22. 7. 8, 게재확정일: 22. 7. 21]